



대학주보

학소위 특별감사 착수 오는 28일 결과 발표 자치회비 사용 점검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서울】지난 1일 중앙회계감사위원회(중감위)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2022년 중감위가 설립된 이후 특별감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9일에 열린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특별 감사 진행의 건’이 가결되며 결정됐다.

중감위 감사는 정기감사, 통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된다. 특별감사는 총학생회칙 제66조 4항 및 제19조 1항에 따라, 감사 대상 단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별도의 감사 요청이 접수된 경우, 중감위 내부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착수된다.

중감위 노동령 부위원장(정치외교학 2024)은 “특별감사는 해당 감사단위가 자치회비를 사용한 사업 진행 자체에 의문과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치회비를 사용한 경과 혹은 정당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소위는 폐지 논의와 대안 기구 설립 검토가 진행되면서, 그간의 예산 운용에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회의록 등에서 자주 언급된 학소위 사업 ‘잔디밭 세미나’의 사례금 지급 기준, 외부 시민단체에 자치회비를 지참금 항목으로 지출한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학소위는 “잔디밭 세미나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전문성을 갖춘 연사를 초청했으며, 사례금은 시세를 확인한 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단체 지참금 사용에 대해서는 “후원이 아닌 행사 진행 목적의 지출로, 학소위 내부 의결 절차

를 거쳐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노 부위원장은 “특별감사가 착수된 것은 감사 이후 제기된 문제, 외부 단위로부터의 이미 종료된 회기의 자치회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에 대한 응답 차원”이라며 “이전 회에 발생된 문제를 넘긴 것은 실수나, 뒤늦게라도 포착했다면 그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특별감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희대 서울캠 총학생회 학생회칙 ▲경희대 서울캠 총학생회 재정은용세칙 ▲경희대 서울캠 중앙회계감사위원회 회칙 ▲경희대 학생자치기구 및 대외기구에서 의결하거나,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운영 원칙 및 방향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 및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준칙 등이다.

이번 감사에는 학소위가 제출한 자료가 활용됐으며 제출된 내용은 학소위 출범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의 자치회비 지출 내역을 포함한다.

노 부위원장은 “감사를 위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됐으며 자료 제출과정에서도 학소위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2차 감사가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는 오는 28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노 부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감사 결과가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학소위에 대한 학우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는 감사 직후 홈페이지와 대자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공지된다. 만약 감사 결과에 따라 학소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감위의 권한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교수학습개발원 2025-1 학습프로그램 최종발표회

지난 15일,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주최한 서울캠의 ‘2025-1 학습프로그램 시상식 및 최종발표회’가 마무리됐다. 해당 행사에선 ‘학생들이 바라는 강의노트: PPT 템플릿’ 공모전 수상자, ‘(서울)스터디그룹+’ 우수팀, ‘교수-학생 상호작용 활성화 수업지원’ 최우수 학습일지 수상자 발표가 진행됐다. (사진=한민 기자)

‘인프라 5개년’ 매년 140억 투입 중앙도서관 · 학생회관 리모델링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등록금이 5.1% 인상된 가운데, 우리학교는 인상분을 포함한 학교 예산을 장학금 확대와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학기 소통간담회에서 언급된 각종 인프라 관련 민원에 따라, 학교는 ‘인프라 5개년 계획’을 비롯한 보수 계획을 수립했다.

인프라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약 1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교내 노후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법령 위반 여부, 안전성 위험 여부, 시급성 정도,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공간 여부를 기준으로 수립됐다.

**화장실 · 옥상 보수 착수
음대 · 약대 공간 부족 문제 제외**

올해 인프라 보수 계획으로 서울캠은 ▲구 한의대 화장실 개선 공사 ▲중앙도서관, 교수회관, 학

생회관, 오피스홀 옥상 방수 공사 등이, 국제캠은 ▲공대, 외대, 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중앙도서관, 외대 외벽 보수 ▲공대, 체대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관리팀은 개방형 흡연 부스 디자인 안을 생과대와 조율 중이다. 올해 안에 개방형 흡연 부스 두대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소통간담회에서 지적된 오피스홀 천장 누수와 흡연 공간 부족 문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전 소통간담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 온 음대와 약대의 공간 부족 문제는 인프라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팀 김민석 계장은 “건물 증축은 계획을 세웠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본부에서 논의가 이뤄져도, 교육부 허가와 이사회 통과 승인을 받아야 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회관, 3개년 단계적 보수
문과대 · 청운관등 순차정비 예정**

학생회관은 올해부터 2027학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보수가 진행된다. 올해는 4층 화장실과 전체 화장실을 보수한다. 그리고 4층 석면은 이미 철거된 상태다. 화장실 보수 업체는 선정됐지만 나머지 공정을 진행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김 계장은 “업체를 선정하면 7월 말 착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회관은 대대적인 공사로, 한 번에 모두 진행하기엔 범위가 넓다”며 “구역을 나눠 3개년에 걸쳐 공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과대 2층과 4층 보수, 국제교육원에서 미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2026학년도에 진행될 예정이다. 청운관 화장실 및 냉난방장치 수리는 2027학년도에 계획돼 있다.

다만 예산팀은 변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예산팀 김영진 팀장은 “이는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